

『士小節』의 청소년교육론 연구

陳 晟 秀 *

<目次>

- | | |
|----------------|------------------|
| I. 서론 | III. 청소년예절교육의 원리 |
| II. 이덕무와 『사소절』 | IV. 결론 |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이덕무의 청소년예절교육론의 본질과 원리를 살펴보고, 그의 청소년예절교육론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이덕무의 생애와 『사소절』의 저술동기, 『사소절』의 구성과 내용 등을 살펴보았으며, 『사소절』 「동규」편을 중심으로 청소년예절교육의 3가지 원리를 검토하였다.

이덕무가 활동했던 조선후기는 근대사회로의 전환기였다. 당시는 중인층의 문화운동 전성기였으며, 지식인을 중심으로 역사의식을 새롭게 정립하려던 시기였다. 또한 당시는 기존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새로운 질서의식이 싹트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덕무는 신분과 직업에 관계없는 개방적·실용적·맞춤식 교육을 강조하였다.

『사소절』은 조선의 문예부흥기인 영조 51년(1775)에 실학자 이덕무가 지은 생활예절수양서이다. 이덕무는 序文에서 자신의 修身齊家를 위해 『사소절』을 저술했다고 말했다. 전체내용은 ‘남자들의 예법’을 다룬 「士典」과 ‘여자들의 예절’을 다룬 「婦儀」, ‘청소년들의 생활규범’을 다루고 있는 「童規」 등으로 구

*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chinsungu@skku.edu

성되어 있다. 이것은 ‘작은 예절을 지켜서 허물을 적게 하면 大義에 나아갈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덕무가 강조한 청소년예절교육의 원리를 ‘조기교육의 원리’, ‘생활교육의 원리’, ‘가치교육의 원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주제어】 사소절, 이덕무, 청소년, 예절교육, 조기교육, 생활교육, 가치교육

I. 서론

현대인들은 고도로 산업화·정보화된 사회에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나, 무한경쟁과 계층 간의 갈등,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분별한 외래문화 도입, 전통문화의 단절, 인간성 상실 등과 같은 정신적인 가치의 붕괴와 혼란에 기인한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全人教育의 약화 및 상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교육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은 개인의 인격완성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교육은 지나친 입시위주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의 붕괴, 사교육 팽창과 교권추락, 교사와 학부모 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즉 산업발전으로 물질적 풍요와 지적수준은 향상 되었으나, 반면 지나친 학벌주의와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의 퇴조로 인해孝敬心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이는 과도한 지식위주의 교육이 건전한 윤리관·가치관, 인성교육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대교육의 모순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목표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성예절교육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도덕성 함양과 인성교육을 중요시했다. 특히 修身을 위주로 한 早期教育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청소년기의 人性이 成人의 도덕성

에 기초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李德懋(1741-1793)¹⁾는 인간의 기본윤리로서 忠恕와 九容·九思 등을 중시하며 人性교육에 필요한 생활예절지침서로서 『사소절』을 저술하였다. 이덕무는 序文에서 “자신의 인격수양과 가정교육을 위해 『사소절』을 저술했다”고 밝혔다.

이덕무는 일상생활에서의 도덕교육을 강조하고, 당시 현실에 맞는 인성예절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實例와 함께 제시했다. 따라서 『사소절』은 전통사회의 예절교육을 조명할 수 있는 소중한 문헌자료이다. 특히 『사소절』의 「童規」편은 현대 청소년예절교육 정립에 참고가 될 만한 귀중한 자료이다.

본 논문은 현대사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생활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한 이덕무의 청소년교육론에 대해 『사소절』 「동규」편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덕무의 청소년예절교육론의 본질과 원리에 관해 살펴보고, 현대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덕무의 청소년예절교육론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덕무의 생애와 『사소절』의 저술동기, 『사소절』의 구성과 내용적 특징, 청소년예절교육의 원리와 내용, 이덕무의 청소년교육론의 현대적 의의 등을 살펴볼 것이다.

II. 이덕무와 『사소절』

1. 이덕무의 삶과 학문

이덕무는 1741년 6월 11일, 茂林君의 후손으로 한성 대사동에서 通德郎 李聖浩와 潘南 朴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인 이성호는

1) 조선후기의 실학자이며, 본관은 全州, 자는 懋官, 호는 雅亭·靑莊館·炯菴·영처·東方一士·단좌헌·향초원·팔분당·학초목당·주충어제·선굴헌 등이다.

이덕무의 조부인 必益의 庶子로서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덕무는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사대부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어려서부터 博覽強記하고 詩文에 뛰어났다.

이덕무는 家學으로 글을 배우고 일정한 스승 없이 스스로 공부하여 터득하였다. 그의 학문적 열의는 고증적인 학문관으로 발전했으며, 훗날 수많은 서적을 남기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덕무의 유년시절에 대해 연암 박지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젠가 집안사람들이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가, 저녁 무렵에야 대청 벽 뒤의 풀 더미 사이에서 발견했다. 대개 벽에 도배지로 바른 古書를 보는 데 빠져서 날이 저문 줄도 몰랐었기 때문이었다.²⁾

이덕무는 당시 지배층위주의 폐쇄적인 교육에 반대하며, 신분과 직업에 관계없는 개방적인 교육을 주장했다.³⁾ 교육내용 역시 기존 과거시험 위주가 아닌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하였으며, 교육방법은 개인차를 인정하고 능력에 맞는 교육을 주장했다.⁴⁾ 그러나 이덕무 자신은 유학에 기초한 사대부 정신의 본질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치와 교만을 삼가고 근검을 중요시 하였다.

이덕무의 人性은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행실이 바르며 공정했다. 또한 인정이 넘쳤으나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청년기에는 권력과 이권에 뜻을 두지 않고 학업에만 열중하여 經史子集에 두루 통달하였다. 이로 인해 弱冠의 나이에 朴齊家(1759-1805)·柳得恭(1748-1807)·李書九(1754-1825)와 함께 시집인 『巾衍集』을 출간하여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

2) 朴趾源, 『燕巖集』 卷3(潘南朴趾源美齋著), 孔雀館文稿 行狀, 「炯菴行狀」, “家人嘗失所在, 向夕於廳壁後積草間得之, 蓋耽觀塗壁之古書, 不知日之暮也.”

3) 김계진, 「이덕무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58-59.

4) 김정현, 「조선후기 초학교제에 나타난 실학교육사상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3.

치고 ‘四家詩人’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다. 이후 朴趾源(1737-1805)·洪大容(1731-1783)·徐理修(1749-1802) 등 북학과 실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1778년(정조 2년, 38세)에는 사은 겸 진주사 沈念祖(1734-1783)의 서장관으로 청나라 燕京에 갔다. 이때 중국의 紀均(1724-1805)·唐樂宇(?-?)·潘庭筠(?-?)·李肇源(1735-1806)·李挺元(1567-1623)·李憲教(1880-1935)·蔡曾源(?-?) 등 당대의 西學派들과 교류했다. 귀국할 때에는 중국의 산천·도리·궁실·누대·초목·충어·조수에 관한 기록과 함께 중국의 많은 고증학 관련 서적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훗날 그의 북학론 발전에 큰 자산이 되었다.

1779년(정조 3년, 39세), 正祖가 규장각을 설치하여 검서관을 등용할 때 박제가·유득공·서이수 등과 함께 초대 규장각 외각검서관이 되었다. 또한 顧炎武(1613-1682)·朱彝尊(1629-1709)·徐乾學(1631-1694) 등의 영향으로 중국고증학에 심취하여 청나라 고증학자였던 李萬運(1723-1797)에게 지도를 받았다. 특히 당시 서울 지도인 『城市全圖』를 보고 읊은 百韻詩가 정조로부터 ‘雅’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아호를 ‘雅亭’이라고 정했다.

이덕무는 천성이 근면하고 시문에 뛰어나 규장각 경시대회에서 여러 차례 장원하여 1781년 내각검서관이 되었으며, 사도시주부·사근도찰방·광흥창주부·적성현감 등을 거쳐 1791년 사옹원주부가 되었다. 당시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규장각의 도서편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전회통』, 『규장전운』, 『기전고』, 『도서집성』, 『국조보감』, 『규장각지』, 『홍문관지』, 『검서청기』, 『시관소전』, 『송사전』등을 정리하고 교감하였다.

1793(정조 17년, 54세), 病으로 세상을 떠날 때 정조는 그의 공적을 기념하여 장례비와 유고집인 『아정유고』의 간행비를 하사했다. 이밖에 이덕무는 書畫에도 능했으며, 『영취시고』, 『이목구심서』, 『기년아람』, 『사소절』, 『영취문고』, 『청비록』, 『뇌퇴낙락서』, 『영취잡고』, 『관독일기』, 『양엽기』, 『입연기』, 『열상방언』, 『예기고』, 『편찬잡고』, 『천애지기서』, 『한

죽당수필』, 『청장관전서』 등을 남겼다.

이덕무의 생애를 통해 볼 때, 그의 실학정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主體的 사고이다. 18세기에 이르러 중국의 발전된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지나치게 모화적인 세대에 대해 그는 중국을 수용하는 도량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말소리, 의복, 풍속, 법제 등은 하나같이 우리나라를 따라야지 만일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풍속을 어기려고 하면 망령된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이다.”⁵⁾라고 비판하였다. 이것은 선진문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체적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째, 人本主義的 사고이다. 이덕무는 조선후기 당시를 기본적인 綱常秩序마저 무너진 사회로 인식하고, 각종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인륜도덕과 인간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소절』의 저술동기에 대해 “옛날 성현의 남겨놓은 가르침을 인용하여 경계할 점으로 갖추었고, 지금 사람들에게 가까운 요즈음 일들을 기록하여 보고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⁶⁾라고 말한다. 이처럼 인간이 중심[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덕무는 기존의 위정자 중심의 도덕관에서 벗어나 일반대중의 예절관과 윤리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인본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實用的 사고이다. 이덕무는 “일을 처리함에는 성사시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독서함에는 활용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⁷⁾라고 말하며 배움과 실천의 합일을 주장했다. 즉 그는 이론보다는 실천에 주목하여 실질적인 일처리를 중요시하였으며, 독서의 범위도 법률·의학·경제관련 서적까지 확장하여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실생활에 유익하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48권, 「耳目口心書」一, “大抵吾輩, 朝鮮國人也, 語音衣服風俗法制, 一從我國, 若欲超違脫俗, 非妄人則狂夫也.”

6) 李德懋, 『士小節』, 「序」, “援昔賢遺訓, 備箴警也, 紀今人近事, 資觀感也.”

7)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48권, 「耳目口心書」三, “處事貴通, 讀書貴活.”

2. 『사소절』의 저술동기

『사소절』은 조선의 문예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영조 51년(1775)에 실학자였던 이덕무가 지은 생활예절지침서이다. 序文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덕무는 사소한 예절부터 배워나갈 것을 강조한다. 특히, 평상시 생활에서 스스로 옳고 그른 점을 분별하여 이를 충분히 체득해야함을 주장한다.

『사소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士典」은 남자의 예법, 「婦儀」는 여자의 예절, 「童規」는 어린이 생활규범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작은 예절을 지켜서 허물을 적게 하면 大義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덕무는 『사소절』 「序」에서 ‘선비의 작은 예절’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사소한 예절을 잘 살피서 그 허물을 적게 하려고 하였으나 돌아보면 잘 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사람들은 항상 사소한 예절에는 매일 것이 아니라고 들 말하지만, 나는 일찍이 이는 올바른 도리에 어긋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書經』에 말하기를 “조그만 행실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침내 큰 행실을 잘못되게 만든다.”라고 하였는데, 조그만 행실은 곧 사소한 예절이다. 그러므로 사소한 예절을 닦지 않고서 능히 큰 예의를 실행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⁸⁾

이처럼 이덕무는 실생활에서 사소한 예절을 잘 살피서 허물을 적게 하는 것이 大義를 실천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소학』을 배워 작은 의리를 배우고, 『대학』에서 큰 의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小節을 체계적으로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소절』을 저술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8) 李德懋, 『士小節』, 「序」, “蓋欲察乎小節, 寡其過而顧有所不能, 人有恒言, 不拘小節, 竊嘗以爲畔經之言也, 書曰, 不矜細行, 終累大德, 細行, 卽小節也, 故小節之不修, 而能致其大義者, 未之見也.”

나도 역시 일찍이 이 책[小學]을 읽고 그 뜻을 따랐으나, 그보다 6-7백년 뒤에 태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시대적으로 옛날과 지금이 달라졌으며 풍속도 같지 않고 습관은 더욱 나빠져서 몸가짐을 반성하고 마음가짐을 징험하여도 사소한 예절에 대해서는 실천되지 않은 것이 열 가지 중에 일곱 여덟 가지이다.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있어도 잘 행하여지는 것이 또한 열 가지 중에서 두세 가지 정도이다. 잘 실행되는 것이 적으면 착한 일을 하기가 아주 어렵고, 잘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 많으면 악한 일을 하기가 쉽게 될 것이다.⁹⁾

이처럼 이덕무는 사소한 예절이라도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朱子가 『소학』을 지은 후에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 시대적으로도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대로 실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덕무는 사소한 예절을 기록하여 실생활에서 실천하는데 힘쓰도록 하기위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모아 생활예절지침서를 저술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덕무의 생각은 그의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이덕무는 “周나라가 쇠약하여지자 제후들이 그 법도를 넘어 행동하여 그 책을 없애고, 秦나라에 이르러서는 그 법도가 크게 무너지고, 漢나라가 일어난 뒤에는 예절이 좀 나타나서 여러 가지 곡절을 자세하게 마련하였는데, 모든 것이 사소한 예절에 근본을 두었고, 「曲禮」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¹⁰⁾라고 말한다. 이처럼 ‘小節에 유의하여 실생활에서부터 작은 예절을 지키는 것이 大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이덕무는 중국의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와 禮를 연관지어 이해했다.

또한 이덕무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가족들이 본받을 것이 없음

9) 李德懋, 『士小節』, 「序」, “德懋亦嘗謹讀而持循之, 然至于六七百年之下, 處于遐僻之鄉, 古今迭遷, 風俗不齊, 習氣彌偷, 反諸身而驗諸心, 其於小節, 不能踐之者, 十之七八, 有所自得而能行者, 亦幾十之二三, 其所能行者少, 則爲善甚難, 其所不能者多, 則不幾於爲惡之甚易.”

10) 李德懋, 『士小節』, 「序」, “周衰而諸侯踰法越度, 滅其籍, 至秦大壞, 漢興而禮稍出焉, 纖悉曲折, 皆本乎小節, 至曲禮而始著矣.”

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사소절』을 저술했다고 말한다. 아울러 자신은 빈천한 선비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사대부들의 大禮가 아닌 사소한 예절에 국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덕무는 『사소절』의 쓰임이 단지 자신과 가정에서 지켜야할 법칙을 정립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일 뿐, 사회적인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항상 두려워한 점은 내 자신이 사소한 예절을 잘 닦지 않아서 가족들이 본받을 점이 없을까 하는 것이다. 내 이 점을 근심스럽게 생각하여 책으로 그 사실을 만들어 실었는데, 번거롭고 복잡한 것을 가리지 않고, 그 사소한 점도 깎아 버리지 않았다. 또 내 자신이 빈천한 선비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빈천에 관한 구절이 많았다. 그리고 옛날 성현의 남겨놓은 가르침을 인용하여 경계할 점으로 갖추었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요즈음 일들을 기록하여 보고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이는 감히 세상일에 모범이 되고 남의 생활을 규제하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스스로 우리 가정에서 지켜나갈 법칙을 삼으려고 할 따름이었다.¹¹⁾

한편 이덕무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검소한 가정에서 엄격하고 자상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 덕택이라고 고백한다. 즉 “나의 가정은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순결하고 검소하였다. 아버님께서 나를 가르치실 때 매를 때리거나 꾸짖지 않으셨으며 밖에서 모셔오는 스승에게 말기지도 않고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한편, 외부의 유혹을 금지했을 뿐이다. 그것은 내가 체질이 연약하여 나쁜 짓을 감히 하지 못하고 성품이 조밀하므로 훈계를 감히 어기지 못하기 때문이요, 자질이 아름다워 학문에 뜻을 가진 자이기 때문은 아니었다.”¹²⁾라고 말하며 겸양의 덕을 갖

11) 李德懋, 『士小節』, 「序」, “常懼身不修小節, 而家人之無則也, 惕然而思, 載之于冊, 不擇其煩複, 不刪其委細, 以其貧賤之士也, 故其所道說, 多貧賤之節, 而援昔賢遺訓, 備箴警也, 紀今人近事, 資觀感也, 匪敢曰範俗而規人, 只自爲身家之法則而已.”

12) 李德懋, 『士小節』, 「序」, “德懋家世淳樸, 家大人教德懋, 不施夏楚訶責, 不托外傳, 不離房闈之間, 而勤其課讀, 禁止其外誘而已, 以其體氣羸薄, 故不敢作

춘 선비의 인격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사소절』의 저술동기를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小節을 실천해야 大義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덕무는 조선후기라는 시대상황에서 작은 예절을 경시한 사회풍조를 비판하고, 기본적인 생활예절을 갖추어야 바람직한 인격과 건전한 사회·국가가 완성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현실에 유용한 생활예절 교재의 필요성이다. 당시 대표적인 예절교육서인 『소학』은 역사·지리·관습의 차이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셋째, 사회교육과 국민윤리 정립이 아닌 자신과 집안사람들을 훈계하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이덕무는 『사소절』 저술의 직접적인 계기는 修身齊家를 위한 것이며, 일종의 가정교훈서로서 가족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기록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덕무는 조선후기의 실학자로서 예절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시대적 상황과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알맞은 생활예절교육서인 『사소절』을 저술하였다. 특히 「동규」편은 당시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생활예절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다.

3. 『사소절』의 구성과 내용

『사소절』은 『靑莊館全書(全 67권 31책)』 중 권27-31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은 8권 2책 924장으로 구성되어있다.¹³⁾ 이덕무는 『사소절』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사전」은 자신을 깨우쳐 되도록 허물을 적게 할 목적을 위함이고, 「부의」는 내 집 부인을 경계하기 위함이

惡, 稟性謹拙, 故不敢違訓, 匪所謂質美而志夫學者也.”

13) 『士小節』, 「序」에는 924장이라고 되어 있으나, 다른 판본(최성환, 백두용 등)에서는 916장 혹은 885장으로 되어 있다. 한편, 『靑莊館全書』, 「士小節」은 9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筆寫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같은 것을 함께 묶었거나 혹은 소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순, 「사소절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20.)

요, 「동규」는 자제들을 훈계하기 위함이니, 이것 또한 아버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던 뜻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다.”¹⁴⁾라고 서술하고 있다.

제1권~제5권은 「士典」으로서 남자의 예법에 관한 내용 58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性行(성품과 행실) 44장, 言語(언어) 38장, 服食(의복과 음식) 57장이다. 제2권은 動止(행동거지) 72장, 謹慎(몸가짐을 삼감) 49장이다. 제3권은 教習(가르쳐 익힘) 49장, 人倫(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37장이다. 제4권은 交際(남들과의 교제) 120장이다. 제5권은 御下(아랫사람을 거느림) 28장, 事物(여러 가지 일) 86장 등이다.

제6권~제7권은 「婦儀」로서 부녀자의 예절에 관한 내용 20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권은 性行(성품과 행실) 26장, 言語(언어) 16장, 服食(의복과 음식) 45장, 動止(행동거지) 24장으로 되어 있다. 제7권은 教育(교육) 17장, 人倫(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26장, 祭祀(제사) 8장, 事物(여러 가지 일) 43장 등이다.

제8권은 「童規」로서 어린이의 규범에 관한 내용 13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動止(행동거지) 39장, 敬長(어른을 공경함) 23장, 教習(가르쳐 익힘) 38장, 事物(여러 가지 일) 31장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사소절의 체계와 내용

편명	구분	문장수	세 부 내 용	비고
士典篇 (580章)	性行	44章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성품과 행실	1卷
	言語	38章	올바른 언어생활과 대화예절	
	服食	57章	올바른 의생활·식생활예절, 손님접대 방법	
	動止	72章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행동 예절	2卷
	謹慎	49章	신중한 선비의 몸가짐과 마음가짐	3卷
	教習	49章	교육방법 및 내용, 독서의 중요성	
	人倫	37章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	

14) 李德懋, 『士小節』, 「序」, “士典, 洒所自砥, 以期乎寡過, 婦儀, 以之警戒室婦, 童規, 所以訓夫子弟, 茲亦庶幾不墜家大人之教德懋者云.”

편명	구분	문장수	세 부 내 용	비고
士典篇 (580章)	交接	120章	남들과 교제할 때에 지켜야 할 예절	4卷
	御下	28章	자녀에 대한 훈계와 가정을 다스리는 법	5卷
	事物	86章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	
婦儀篇 (205章)	性行	26章	여성들이 갖추어야할 올바른 성품과 행실	6卷
	言語	16章	말하거나 문장을 쓸 때 올바른 태도와 방법	
	服食	45章	여성이 갖추어야할 의생활과 식생활 예절	
	動止	24章	여성들의 일상생활 예절	7卷
	教育	17章	여성교육의 중요성과 내용 및 방법	
	人倫	26章	며느리, 아내, 동서, 형제, 적·서간의 예절	
	祭祀	8章	제사의 절차 및 정성과 청결	
事物	43章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		
童規篇 (131章)	動止	39章	아동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규범	8卷
	教習	38章	올바른 학습태도와 교육법	
	敬長	23章	어른을 공경스럽게 섬기는 방법	
	事物	31章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	
총계		916章		

이처럼 『사소절』은 「사전」·「부의」·「동규」로 구성되어있으며, 주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할 사소한 예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예절교육에 관련된 「동규」편은 올바른 선비로 성장하기 위해 지켜야할 청소년들의 행동거지[動止]와 올바른 학습태도와 교육법[教習], 어른 공경[敬長]의 중요성, 청소년들이 지켜야할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예절 및 바람직한 생활자세[事物]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Ⅲ. 청소년예절교육의 원리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서 兒童과 成人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¹⁵⁾ 특히 현대 청소년들은 열정적이고 충동적이며 주체의식이 발달되어 있어서 자기주장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

다. 또한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단점이 있으나, 반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기성세대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¹⁶⁾

유교에서의 예란, 넓은 의미로는 풍속이나 습관으로 형성된 행위준칙, 도덕규범으로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유교적 윤리규범을 지칭한다. 예는 본래 고대사회에서 복을 받기 위해 귀신을 섬기는 일에서 비롯되었다.¹⁷⁾ 孔子 이전 夏殷周 三代의 禮는 종교적 색채가 강했다. 이후

-
- 15) 우리나라는 청소년 기본법(2010.5.17 법률 제10298호) 개정안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 16) 청소년의 정의는 심리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심리학적 관점은 버거스(Bergius)와 로스(Roth)의 견해로서 12-20세까지의 급성장 기간을 청소년기로 보았다. 심리학자 오즈벨(D.P.Ausubel)은 청소년의 개념을 계속적인 성장과정으로 보고, 생물학적 관점에서 육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셸스키(H. Schelsky)는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발달단계로서 아동의 역할행동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나 성인의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으며, 행동이 미성숙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정치·경제 등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뢰겔러(O. Pöggeler)는 인간성장 중에 청소년기만을 개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며, 단지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해보면, ①신체·생리적 특징 ②정신적 특징 ③사회심리·정서적 특징 등이다. 이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자아 정체성’의 확립과 ‘독립’의 요구에 따른 심리적 離乳期 현상이다. 따라서 타인이나 외적 대상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자아를 찾고 자기를 발견하며, 독립적인 자아형성과 정신적 의존관계에 있는 부모로부터 이탈하여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독립된 행동을 하려고 한다. (권이중·김용구, 『청소년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11, pp.17-21.)
- 17) 『說文解字』에 따르면, ‘禮’자의 ‘示’는 ‘神’에서 유래했으며, ‘豊’은 그릇에 곡식을 담은 모양을 본떴다고 한다. 『설문해자』는 後漢 때 許慎(58경-147경)이 편찬한 최초의 字典이다. 본문은 총 14권이며, 敍目 1권이 추가되어 있다. 9,353개의 글자가 수록되어 있다. 원본은 전해지지 않으며 현재 宋代 徐鉉의 교정본이 남아 있다. 관련 저작으로는 清代 段玉裁의 『說文解字注』가 가장 자세하다.

西周初에 이르러 殷禮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周公에 의해 禮樂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周禮』는 공자 당시에도 이미 많은 변천을 겪었으며, 이후에도 예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공자는 “은나라는 夏禮에 말미암았으니 손익한 바를 알 수 있고, 주나라는 殷禮에서 말미암았으니 손익한 바를 알 수 있으며, 주나라를 계승한다면 비록 百代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¹⁸⁾라고 하였다. 하지만 周代에 이르러 예는 종교적 성격이 많이 감소되고, 정치적·윤리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유가에서는 예를 매우 중요시하여 『시경』에 “사람이면서 예가 없다니 어찌하여 빨리 죽지 않는가.”¹⁹⁾라고 하며 예로써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을 삼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禮란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활규범이며, 죽은 사람들을 위한 祭祀儀式이며, 만물을 통괄하는 우주원리이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친화력의 강화 수단이며, 神的인 존재를 위해서는 제사를 통해 혈통간의 친화와 유대를 확인하는 문화적 기제이다. 따라서 禮는恭敬과 친화의 마음을 言行으로 표현한 규범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²⁰⁾ 한편 예절이란,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과 관습체계로서 예절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생활방식·사고방식·사회풍조·시대상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예절은 법과 같이 강제규범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한다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도덕적인 비난을 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예절교육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정신과 행동규범을 가르치고, 그것에 맞는 행동이 습관화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논어』에서는 “제자는 들어와서 효도하고 나가면 공손하며 삼

18) 『論語』, 「爲政」, “子曰 殷因於夏禮, 所損益, 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 可知也, 其或繼周者, 雖百世 可知也”

19) 『詩經』, 「鄘風·相鼠」, “人而無禮, 胡不遘死.”

20) 禮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五禮(吉禮·凶禮·軍禮·賓禮·嘉禮), 九禮(冠禮·婚禮·朝禮·聘禮·喪禮·祭禮·賓主禮·鄉飲禮·軍旅禮), 四禮(冠禮·婚禮·喪禮·祭禮) 등이다. 이 중 四禮를 가리켜 家禮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자가 집대성하여 편찬한 것이 『朱子家禮』이다.

가고 미덥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사람과 친해야 하고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²¹⁾라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가져야할 7가지 마음가짐과 올바른 태도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서 儒學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이덕무는 『禮記』를 인용하여 孝나 倫理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교육으로 禮節을 중요시 하였으며, 父母·年長子·老人·스승을 섬기는 법과 祭祀 드리는 법 등을 강조했다. 즉 “喪을 당한 兒童들이 망연히 사람의 범절을 알지 못하여 뛰어 놀고 詩나 文章을 외우고 읊는 일이 있는데, 어른이 거둬 가르치고 타일러서 예절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²²⁾라고 말하며 어렸을 때부터 생활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덕무는 청소년인성예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청소년예절교육은 가능한 조기에 가르쳐야 하며, 생활에서 반복·숙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가치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章에서는 『사소절』에 나타난 청소년예절교육의 원리를 ‘조기교육의 원리’, ‘생활교육의 원리’, ‘가치교육의 원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1. 조기교육의 원리

기본생활 습관은 개인의 올바른 인성형성에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可塑性이 풍부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잘못된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조기교육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21) 『論語』, 「學而」,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22) 李德懋, 『士小節』, 「童規·動止」, “居喪童子, 矇然不識人事, 遊戲馳逐, 誦咏詩詞, 長者教諭申申, 不使之放縱禮節.”

조기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출생으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兒童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조기교육은 ‘인간에게는 특정한 현상을 인지하고 습득하는 민감한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있으며, 특히 제반 발달과정은 인생의 초기에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교육이론에 근거한다.²³⁾ 프로이트(Freud: 1856-1939)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과 인성은 유아기와 아동기에 그 기초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유아기와 아동기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두뇌발달과 성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조기교육 열풍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이 인생의 초기에 형성되어 한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기교육은 인간의 발달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적인 의미 보다는 선행학습과 같은 교과중심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전통사회에서 조기교육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로서 부모에 의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즉 가정을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좋지 않은 버릇을 방지하고, 올바른 예절을 습득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덕무는 올바른 인성함양에 필요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기』와 정이천 선생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기』에 말하기를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금하는 것을 예방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²⁴⁾

이천선생은 말하기를 “사람이 어릴 때는 아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아직 주건이

23) 김향은, 「전통사회의 아동교육원리」, 『아동연구』 10집, 高神大學校 兒童研究所, 2001, p.68.

24) 李德懋, 『士小節』, 「童規·事物」, “學記曰 禁於未發之爲豫.”

없으니, 마땅히 격언과 지극히 훌륭한 이론을 날마다 그 앞에 벌려 놓으면 비록 똑똑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뭉근히 풍기는 향기가 귀에 배고 배어 차서 오래 되면 저절로 익혀져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 비록 다른 말로 유혹하더라도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미리 하지 않다가 좀 자라게 된다면, 사사로운 생각과 좋아하는 편견이 안에서 생기고, 여러 사람의 판단하는 말이 밖에서 녹아들어 순진하고 완전하게 되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였다.²⁵⁾

이덕무는 어렸을 때부터 인성함양을 위해 좋은 글을 매일 읽어주거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생활화 하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와 또래 친구들을 통한 모델링은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이덕무는 어렸을 때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나쁜 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기에 가르치는 것을 온전한 인격교육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했다.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를 조련하지 않으면 좋은 말이 될 수 없고, 어린 소나무는 가꾸지 않으면 아름다운 재목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식이 있으나 가르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²⁶⁾

무릇 의복·음식·거처 또는 심부름시키는 일 등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멋대로 화를 내고 원망을 한다면, 그가 장성하였을 때 크게는 흉악하고 작게는 가혹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릴 때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선량하고 온순한 버릇을 양성해야만 군자가 될 수 있다.²⁷⁾

-
- 25) 李德懋, 『士小節』, 「童規·事物」, “伊川先生曰 人之幼也, 知思未有所生, 當以格言至論, 陳於前, 未曉知, 當薰聒, 盈耳充腹, 自安習, 有之, 以他言惑之, 入也, 爲之不豫, 乎稍長, 意偏好生於內, 口辯言鑠於外, 其純完, 可得也.”
- 26) 李德懋, 『士小節』, 「童規·教習」, “生馬之駒, 不能調習, 不可以爲良驥, 穉松之苗, 不能培壅, 不可以成美材, 故有子而不能教, 猶棄之也.”
- 27) 李德懋, 『士小節』, 「童規·動止」, “凡衣服飲食居處使令, 若不適意, 恣行恚恨, 及其壯大, 大則凶悖, 小則苛刻, 故方其幼時, 於此等事, 養成良吉溫善之習, 然後可以作君子矣.”

이것은 바람직한 생활습관과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구절이다. 특히 청소년을 군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노여워하거나 원망하는 아이의 버릇을 조기에 바로 잡아주어야 하며,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선한 심성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독서교육과 식생활 예절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독서교육에 관해서는 “선비로서 독서하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 마디 말이나 한 가지 행동에도 반드시 성현의 행적과 훈계를 생각하고 이를 끌어다가 준칙을 삼는 까닭에 행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었다.”²⁸⁾라고 말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통해 성현의 언행과 사상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고전을 매개로하여 성현의 마음을 자신의 준거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성현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교육방법이다. 이밖에 식생활 예절에 관해서는 “식사가 끝나면 반드시 시저(숟가락과 젓가락)를 정돈하여 시저 끝이 상 밖에 내밀게 놓지 말아야한다. 상을 물릴 때 문설주에 닿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 식사를 마치고 시저를 정돈하지 않았더니 仲父께서 경계하셨다. 지금도 밥 먹을 때면 그 생각이 나서 시저를 정돈하지 않을 수가 없다.”²⁹⁾라고 말하며 올바른 식사예절과 정리정돈 습관을 조기에 가르쳐야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식을 낳아서 조금 지식이 있게 되면서부터 마땅히 착한 길로 인도해 나가야 한다. 만약 어리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미 어른이 이르러도 습관이 그릇되고 방심하여 가르치기가 몹시 어렵게 되는 것이

28) 李德懋, 『士小節』, 「士典·教習」, “士貴讀書者, 一言語, 一動作, 必思聖賢事行訓戒, 引以爲準則, 可無顛倒.”

29) 李德懋, 『士小節』, 「士典·謹慎」, “食訖, 必整匙箸, 無以柄剩出案外, 恐其退時, 拂觸於門棖也, 予幼時, 食訖, 輒不能整匙箸, 仲父戒之, 至于今, 每食思之, 不敢不整也.”

다.”³⁰⁾라고 말하며 “청소년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마음가짐을 공명하게 하고 학업을 정대하게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장성하면 스승과 벗을 따라 공부하되 반드시 단정하고 우아한 사람을 취하여 악한 무리와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경전의 가르침을 배반하지 않아야 비로소 잡된 무리가 되는 것을 면할 것이다.”³¹⁾라고 말한다. 이것은 “어려서 바르게 앉는 행동을 익히지 않으면 자라서는 뼈가 굳어 똑바로 앉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앉거나 한편으로 기울어 앉게 되어 행동이 거칠고 어지러워지고 마음도 또한 간사한 데로 기울어져 아홉 가지 몸가짐[九容]이 모두 허물어질 것이니 슬퍼할 만 하다.”³²⁾라는 구절과 상통한다.

어린이들은 흔히 말을 급하게 하고 걸음을 빨리 하는데, 어른들은 보는 대로 금지하여 기어이 바로잡도록 고쳐 주어야 한다.³³⁾

어린이가 좀 자라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잠깐 동안만 배가 고파도 굳이 먹을 것을 찾고, 심한 병에도 약을 잘 안 먹고 물리치는데, 이러한 것도 역시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³⁴⁾

이처럼 언행에서 있어서도 성급한 성격을 반드시 제지하여 침착함을 기를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어야 하며, 참을성 없거나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에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덕

30) 『擊蒙要訣』, 「居家」, “生子, 自稍有知識時, 當導之以善, 若幼而不教, 至於既長, 則習非放心, 教之甚難.”

31) 李德懋, 『士小節』, 「童規·教習」, “教童子, 必先導以心術之公, 學業之正, 及其長大, 追遊師友, 必取端雅, 屏絕匪類, 不背經訓, 始迺免爲雜流.”

32) 李德懋, 『士小節』, 「童規·動止」, “幼時不習危坐, 及長體骨強梗, 不耐整坐, 箕踞偏側, 從而荒散, 心亦傾邪, 九容盡壞, 可哀也已.”

33) 李德懋, 『士小節』, 「童規·動止」, “童子類多急語疾步, 長者隨見隨禁, 期於矯革可也.”

34) 李德懋, 『士小節』, 「童規·動止」, “童子稍長而躁心者, 或暫飢而固索食, 甚病而善却藥, 此亦乖戾之漸也.”

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인내심을 길러주는 조기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즉 그는 “대개 교만은 천박한 데서 생기고 천박은 혼매한데서 생긴다. 이것은 모두 어릴 때 돈후·신중·공경·근신하는 몸가짐을 가르치지 않은 데에 말미암은 것으로서 스스로 효성스럽지 못하고 공경스럽지 못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³⁵⁾라고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기교육이란, 출생으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교육으로서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청소년교육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 친족의 모범적인 행동은 훌륭한 모델링학습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소성이 풍부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두뇌발달과 인격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 개인의 인성과 성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을 강조한 이덕무의 청소년예절 교육론은 『사소절』에서 ‘조기교육의 원리’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활교육의 원리

생활교육이란, 학습자를 주체적 생활자로 인정하고 학습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실생활에서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등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즉 인간이 일정한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 소속된 조직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지식과 기술 및 인격형성에 필요한 어떠한 사실이나 행위를 깨달아가는 교육을 말한다.

이덕무가 활동하던 조선후기는 근대사회로의 전환기로서 실학의 발전과 중인계층의 문화운동이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기였다. 또한 민족의 역사의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윤리관과 질서

35) 李德懋, 『士小節』, 「童規·敬長」, “蓋驕生於淺, 淺生於昏, 摠由于幼時不教以厚重恭謹, 自陷於不孝不弟, 可不懼哉.”

의식이 요청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덕무는 양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신분과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활교육을 강조했다. 특히 이덕무는 교육이란,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실생활에서 유용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밖에도 그는 생활예절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문자·문장교육 및 역사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이덕무가 강조했던 생활예절교육에 관해 『사소절』의 내용을 심리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³⁶⁾

<표-2> 『사소절』의 생활교육원리와 내용

구분	원리	내용
심리적 측면	경험교육의 원리	청소년들의 행위에 대해 특성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경험으로 생활교육에 활용
	상호신뢰의 원리	교사와 부모, 학생과 스승의 상호존중과 신뢰의 중요성 강조
	자발성의 원리	청소년들의 심성을 존중하여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
	개별화의 원리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보편적인 순서와 원칙을 인정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도
행동적 측면	기초습관강화의 원리	기초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충실한 기초교육으로 학습수준을 심화할 것을 강조
	모범과 동일시의 원리	모델링의 대상(부모, 형제, 스승, 친구 등)을 본받아 동일시하고 노력할 것을 강조
	적극성의 원리	신체보존과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하여 실천할 것을 강조
	중용적 체벌의 원리	합리적 원칙에 의한 체벌 강조 ①위엄과 사랑의 병행 ②즉시적인 체벌 ③감정억제와 평상심 유지

먼저 『사소절』의 생활교육원리와 내용 중 심리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

36) 최태삼, 「이덕무(李德懋)의 「사소절(士小節)」에 나타난 아동생활지도 원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118.

①**경험교육의 원리**: 수양이 모자라는 사람은 걸음걸이를 거칠게 하고, 말을 균색하게 하며, 헛기침을 하고 건성으로 웃으며, 머리를 흔들고 손을 내두르는 데, 이는 좋은 기상이 아니다. 『예기』에 “몸가짐에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³⁷⁾

②**상호신뢰의 원리**: 내 일찍이 남의 부탁을 받아 몇 십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으나 마침내 성취한 사람은 적었는데, 이는 모두 그 부형의 지나친 사랑에 연유된 것으로서 처음에는 비록 신신부탁을 하여 더욱 그 감독과 통솔을 염려하나 만약 종아리를 치면 크게 이상한 일로 여기고 아이도 비로소 반발하여 가버렸다. 그러므로 어질지 못한 자제는 금수와 같이 되어 못하는 것이 없으니, 이는 스승의 잘못이 아니라 곧 그 부형의 무식에서 오는 것이다.³⁸⁾

③**자발성의 원리**: 어린이가 과거공부 하는 여러 유생들을 따라서 글공부를 하여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말에 예절이 없으며 행동이 경솔하고 천박하여져서 그대로 고질적인 버릇을 이루는 것은 그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속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자제로 하여금 과거공부를 하게 한다면, 모름지기 근면하고 온후하고 씩씩하고 엄격한 선비에게 의지하여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저절로 바른 몸가짐을 찾아 갖게 될 것이다.³⁹⁾

④**개별화의 원리**: 어린이에게 글을 가르쳐 줄 때는 절대로 많은 분량을 읽히는 것을 피할 것이다. 총명하고 민첩한 아이에게 조금 읽혀 잘 외우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둔한 아이에게 많이 읽히면 오히려 약한 말에 무거운 짐을 실은 것과 같으니, 어찌 멀리 갈 이치가 있겠는가? 책은 조금씩 잘 읽어

37) 李德懋, 『士小節』, 「童規·動止」, “內不足者, 荒步害言, 徒咳乾笑, 貼頭揚手, 非好氣像也, 記曰, 容無作.”

38) 李德懋, 『士小節』, 「士典·教習」, “予嘗受人之托, 教數十童子, 畢竟成就者少, 皆緣其父兄之溺愛, 始雖申申屬托, 而愈恐其督學, 若加楚撻, 則大以爲異事, 而童子始叛去矣, 故雖有嚴師友, 而若無賢父兄, 則不肖子弟, 爲禽爲獸, 無所不至者, 非師友之過也, 酒父兄之無識也.”

39) 李德懋, 『士小節』, 「童規·動止」, “童子隨科舉諸生, 課習文字, 容貌不端, 言語無節, 輕浮淺薄, 仍成痼習, 以其聞見, 不出於俗白故也, 雖不得已, 使子弟業科課, 須托謹厚莊嚴之士, 使之從事, 則童子自然檢攝.”

그 뜻을 충분히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니,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돈 하여 잘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용서하는 것이 옳고, 헛되게 많이 읽고 잘 외우지 않으면 뜻을 더하여 독려하고 살펴서 그 내용을 외우도록 하는 것이 옳다.⁴⁰⁾

이처럼 이덕무는 심리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생활에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관찰과 실제경험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고 올바른 심신수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한다.

다음은 『사소절』의 생활교육원리와 내용 중 행동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

① **기초습관강화의 원리**: 앉을 때는 반드시 기대앉고, 오래 앉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무릎을 흔들고 손을 뒤척이고 어른을 꺼려 피하는 사람과 경박하고 교만하고 거칠고 들떠서 항상 멀리 달아나려는 사람은 좋은 인체가 아니다. 만약 이런 기운을 바로잡고 버릇을 고쳐 주지 않으면 뒷날에 험하고 폐악한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⁴¹⁾

② **모범과 동일시의 원리**: 어리석은 사람, 가난한 사람, 굶사등이, 시골사람 및喪服을 입은 사람을 보면 반드시 조롱하고 농담을 하는데, 이는 어진 마음이 아니다. 그 보다는 더욱 행동을 삼가고 정성스러운 마음과 따뜻한 말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더욱 그들을 보면 웃기가 쉬우니, 이런 아이들은 마땅히 심하게 꾸짖어야 한다.⁴²⁾

40) 李德懋, 『士小節』, 「士典·教習」, “授小兒書, 切忌多行, 聰敏者少讀善誦, 不是好品, 使鈍者多行, 猶弱馬負重, 豈有致遠之理乎, 貴少行熟讀知義, 若如此則雖鈍而不善誦, 恕之可也, 虛籌而不善誦, 加意督察其誦可也.”

41) 李德懋, 『士小節』, 「童規·動止」, “坐必憑依, 不耐久坐, 搖膝翻手, 厭避長者, 輕驕麤浮, 恒有高飛遠走之意者, 非令器也, 若不矯氣革習, 後日不爲凶悖之行者鮮矣.”

42) 李德懋, 『士小節』, 「士典·謹慎」, “癡獸人, 貧窮人, 癱疾人, 鄉野人, 及衰麻

③**적극성의 원리**: 병이 나오려 할 때는 모름지기 정신을 가다듬어 떨쳐야지 오래 누워 게으른 습관을 길러서는 안 되며, 작은 病으로 소란하게 하지 말고, 남의 병문안을 할 때는 정성을 다해 집에 약이나 병을 고치는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가져다주어야 한다.⁴³⁾

④**중용적 체벌의 원리**: 스승이 엄격하면 어리석은 어린이는 반드시 싫어하고 괴로워하여 그 부형에게 고하되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배반하여 유순하고 속된 사람을 따라갈 것이니, 부형은 마땅히 그 간사함을 살펴 엄하게 책망함이 옳다. 스승 된 사람은 만약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그는 끝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니, 멀리하고 쫓아버리는 것이 옳다.⁴⁴⁾

이처럼 이덕무는 청소년들의 결정적인 시기에 교육 소홀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생활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이덕무는 스스로를 반성하며 “(나는) 사소한 예절을 잘 살펴서 그 허물을 적게 하려고 하였으나, 돌아보면 잘 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사람들은 항상 사소한 예절에는 매일 것이 아니라고들 말하지만, 나는 일찍이 이는 올바른 도리에 어긋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⁴⁵⁾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생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덕무는 “남들과 함께 산천을 유람할 때는 여러 동반자와 함께 가고 쉬고 하여야지 따로 딴 생각을 내어 남과 어긋난 행동을 하여서는

者, 人必嘲諧, 此非仁心也, 尤當謹起居, 誠意溫言以待之, 童子尤易笑此輩, 宜深責之.”

- 43) 李德懋, 『士小節』, 「士典·動止」, “病向瘥, 須振掣精神, 不可久臥, 養成懶習, 小病勿騷擾, 問人病, 加意誠款, 家有藥餌及補病之資, 必須餽之.”
- 44) 李德懋, 『士小節』, 「童規·教習」, “師長嚴整則愚下童子必厭苦, 告其父兄曰不善教也, 迺叛而往從軟俗之人, 父兄須當察其姦詐, 切責之可也, 爲師長者, 若有厭苦之童子, 是終不成好人, 疏而逐之可也.”
- 45) 李德懋, 『士小節』, 「序」, “蓋欲察乎小節, 寡其過而顧有所不能, 人有恒言, 不拘小節, 竊嘗以爲畔經之言也.”

안 된다. 만약 먼저 가거나 뒤에 처지거나 혹은 혼자 다른 곳에 가 앉거나 또는 분주히 함께 가기를 재촉하거나 하는 것은 다 함께 유람하는 뜻을 잃어버린 것이다.”⁴⁶⁾라고 말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에서도 상호배려를 강조한다. 이밖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삼가 그 이치를 물어야지, 존엄에 구애되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놓아두고 모두 [예, 예]라 하거나 억지로 이미 안다고 말하여서는 안 된다.”⁴⁷⁾라고 말하며 의문스러운 것이 있으면 어른께 공손히 물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글을 가르칠 때 다른 어린이가 그 옆에서 손가락질 하여 그 뜻을 설명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공경스럽지 못한 것이니 꾸짖어 억제해야 하는 것이 옳다.”⁴⁸⁾라고 말하며 청소년들의 능력에 따라 교육하여 개인별 자질과 적성을 감안하고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육해야 학습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덕무는 문자·문장교육에서 반복학습과 자각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학습의 분량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는 자각교육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덕무는 반복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학습량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릇 글을 가르치는데 많이 가르칠 것이 아니라 다만 정독하여 잘 익히는 것이 귀중하다. 그 자질과 성품을 헤아려서 능히 2백자를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는 다만 1백자만 가르쳐주어 항상 정신과 역량에 여유를 가지게 한다면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근심 없이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⁴⁹⁾

-
- 46) 李德懋, 『士小節』, 「士典·交接」, “與人同游山水, 隨諸伴一心行休, 不可別生異議, 與人乖角, 若或先行後至, 或孤坐它處, 又忙催同伴, 俱失同遊之義也.”
- 47) 李德懋, 『士小節』, 「童規·敬長」, “心有疑, 必謹問條理, 勿拘尊嚴置不辨, 泛稱唯唯, 亦強曰已知之也.”
- 48) 李德懋, 『士小節』, 「童規·敬長」, “長者方授童子書, 它童子或從旁指說其義, 諠聒不已者, 不敬之甚也, 呵而抑之, 可也.”
- 49) 李德懋, 『士小節』, 「童規·教習」, “凡授書, 不在徒多, 但貴精熟, 量其資稟, 能二百字者, 只可授以一百字, 常使精神力量有餘, 則無厭苦之患, 而有自得之.”

책을 읽는 회수는 시간을 배정해서 실시해야지, 건너 뛰어 들쭉날쭉하게 해서 안 된다. 나는 어릴 때 하루도 공부를 빼놓은 일이 없었다. 아침에 40~50 줄을 배워 50번을 읽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섯 차례에 분배하여 한 차례에 열 번씩 읽었다. 병으로 몸이 몹시 아프지 않으면 어기지 않고 공부한 과정이 크게 넓혀지고 정신을 증진시켰으므로, 읽은 책은 지금도 그 대강의 뜻을 기억한다. 나는 기운이 몹시 잔약하였던 까닭으로 배우고 읽는 진도가 매우 적었다. 만약 재주가 장하고 기운이 왕성한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에 따라 그 과정을 익혀나가게 한다면 그 발전은 끝이 없을 것이다.⁵⁰⁾

이처럼 적절한 학습량은 자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 이덕무는 반복학습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성인이 되더라도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으며, 재능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반복학습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글을 읽고 외울 때에는 마음의 뜻을 한 가지로 하여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는 생각하며, 한 글자 한 글자의 참뜻을 찾아내어 반복하고, 그 음절의 높낮이를 맞춰 그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도록 힘쓸 것이다. 오래 계속하면 이치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총명이 날로 열린다.”⁵¹⁾라고 말한다.

또한 이덕무는 청소년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강조한다. 즉 청소년들이 바른 학습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글 읽는 회수와 시간을 정하고 일일계획서를 작성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여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니, 산만하여 표준이 되는 법칙이 없

50) 李德懋, 『士小節』, 「童規·教習」, “課讀遍數, 排定時刻, 不可逾越, 使之參差, 余幼時, 未嘗一日闕課, 朝受四五十行, 讀五十遍, 自朝至暮, 分排五度, 一度十遍, 非疾病, 未嘗違舛, 功程恢恢而增長精神, 所讀之書, 至今猶記大旨, 余氣甚孱薄, 故行遍之數甚少, 若使才氣壯旺者, 隨力爲程, 其進不可以極.”

51) 李德懋, 『士小節』, 「童規·教習」, “諷誦之際, 務令專心一志, 口誦心惟, 字字句句, 紬繹反復, 抑揚其音節, 寬虛其心意, 久則義理浹洽, 聰明日開矣.”

고, 아침에 해가 벌써 창에 비쳐서야 다급하게 배우고 읽으며, 식사를 하고나서 배가 부르다는 이유로 노는데도 법도가 없다. 해가 이미 기울어지면 비로소 몇 번 읽고 밤이 되면 또 졸음에 못 이겨 읽고 외우지 않다가 다음날 반드시 꾸지람 받는 것을 근색하게 회피하려고 한다. 매일 이와 같이 하면 학업이 점점 지리멸렬해진다.⁵²⁾

‘생활교육’은 실생활에서 경험을 통해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등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생활교육은 자아실현을 위해 개인의 잠재능력과 특성을 발견하고 신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생활교육은 자율성 함양을 통해 자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문제에 대응할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이렇게 볼 때, 이덕무가 강조한 생활교육은 청소년들의 인성예절과 인격완성을 도모하는 ‘생활교육의 원리’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치교육의 원리

전통사회에서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禮 때문이다.’ 혹은 “禮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⁵³⁾고 하여 禮節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유학사상은 禮를 인간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예절교육을 모든 교육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덕무는『사소절』에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목표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귀한 사람이 신분이 낮은 선비를 생각하고, 부유한 사람이 남을 도와 줄 것을 생각하며, 비천한 사람이 분수를 알 것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52) 李德懋, 『士小節』, 「童規·教習」, “嘗看諸童子課學, 漫無準式, 朝日既下窓, 受讀太恩惠, 因以食, 食自托飽滿, 遊戲無度, 日既旣, 始強讀略干遍, 夜又困于睡, 不讀誦, 明日必窘遁受責, 日日如是, 漸就滅裂.”

53) 『論語』, 「顏淵」,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지킬 것을 생각한다면, 누가 이런 사람을 군자가 아니라고 말하겠는가.⁵⁴⁾

이것은 易地思之의 자세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절이다. 특히 “귀한 사람이 신분이 낮은 선비를 생각하고, 부유한 사람이 남을 도와 줄 것을 생각하며”라는 구절은 ‘가진 자가 먼저 베푼다.’는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비천한 사람이 분수를 알 것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지킬 것을 생각한다.”는 구절은 군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에 대한 내용이다. 즉 자신의 본분에 맞게 합당한 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⁵⁵⁾

해가 저물어 나룻가에 도착했을 때 배가 기다려 주지 않고 떠나는 등, 이런 일에 모두 심하게 성을 내서 나의 온화한 기운을 상하여서는 안 된다. 이럴 때는 곧 마음을 편안히 하고 다시 한 번 기다들어야 한다.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일이 모두 사람의 근본 행실을 만드는 것이다.⁵⁶⁾

이처럼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는 것도 자신의 온화한 기운을 해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항상 온화한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사에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숨은 사실을 들추어내고 궤이한 일을 행하는 것은 처음보기에는 속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 같으나 그러한 무리는 음험하고 비루하게 되고, 자기의 빛나는 지혜와 덕망을 숨기고 세속에 따르는 행실은 처음 보기에는 그 몸을 온전하게 하려는 것 같으나 그러한 무리는 더럽고 천하게 된다.⁵⁷⁾

54) 李德懋, 『士小節』, 「士典·性行」, “貴思下士, 富思施人, 賤思知分, 貧思守身, 夫誰曰非君子.”

55) 『論語』, 「憲問」, “子曰 不在其位, 不謨其政.”

56) 李德懋, 『士小節』, 「士典·性行」, “日暮當津, 船不即待, 此等事, 皆不可激觸 嗔怒, 損吾和氣, 姑安心, 更爲調度, 莫曰小事, 俱是作人之基.”

57) 李德懋, 『士小節』, 「士典·性行」, “索隱行怪, 始也欲矯俗, 而其流也險仄, 和

수양이 모자라는 사람은 걸음걸이를 거칠게 하고 말을 균색하게 하며, 헛기침을 하고 건성 웃으며, 머리를 기웃거리고 손을 내두르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기상이 아니다. 『예기』에는 “몸가짐에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⁵⁸⁾

이밖에 이덕무는 걸음걸이나 말투, 작은 행동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몸가짐은 곧 자신의 수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항상 몸가짐을 신중히 할 것을 강조하며, 신중한 몸가짐은 청소년들의 학습 자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글을 외울 때는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한 가지로 하여,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한 글자 한 글귀의 참 뜻을 찾아내어 반복하고, 그 음절을 높였다 낮췄다 하며 그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도록 힘쓸 것이다. 이를 오래 계속 한다면 뜻과 이치가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고 총명이 날로 열릴 것이다.⁵⁹⁾

교활한 자제는 글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간사함이 넓혀지면 반드시 도둑이 될 것이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제는 무예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사나움을 기르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다.⁶⁰⁾

위 구절은 학습할 때의 올바른 마음자세에 대한 언급이다. 즉 스스로 글을 읽고 공부하고자 할 때 단순히 글을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뜻을 깊이 새기며 반복하는 것은 학문을 견고하게 해준다고 보았다. 이것은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방침을 고려하여 교육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특히 청소년교육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아이들의 좋지 못한 습관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초기에 교정하고, 학습

光同塵，始也欲全身，而其流也污賤。”

- 58) 李德懋, 『士小節』, 「童規·動止」, “內不足者, 荒步宕言, 徒咳乾笑, 貼頭揚手, 非好氣像也, 記曰, 容無忤.”
- 59) 李德懋, 『士小節』, 「童規·教習」, “諷誦之際, 務令專心一志, 口誦心惟, 字字句句, 細繹反復, 抑揚其音節, 寬虛其心意, 久則義理浹洽, 聰明日開矣.”
- 60) 李德懋, 『士小節』, 「童規·教習」, “狡黠之子弟, 不可使習文詞, 傳其智詐, 則必作賊, 橫逸之子弟, 不可使學武技, 養其暴猛, 則必殺人.”

자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육시킨다면, 좋지 못한 습관과 가치관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격몽요결』에는 낡은 습관을 고치는데 관한 글이 있고, 『성학집요』에는 기질을 바로잡는데 관한 글이 있고, 『소학』에는 가르치는 도리에 관한 글이 있고, 『근사록』에는 남을 가르치는 데 관한 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린이들에게 더욱 절실하고 마땅한 것으로서 모두 뜻을 더하여 힘써 실행해야 할 것이다.⁶¹⁾

대개 교만은 마음이 얇은 데서 생기고, 얇은 마음은 어둡고 혼미한 데서 생긴다. 이것은 어릴 때 둔후·신중·공경·근신하는 몸가짐을 가르치지 않은 데에 말미암은 것으로서 스스로 효성스럽지 못하고 공경스럽지 못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겠는가.⁶²⁾

이덕무는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가치관으로서 겸손과 후덕함, 신중과 공경 등을 강조한다. 특히 천박한 마음과 바르지 못한 몸가짐에서 생기는 교만은 결국 어렸을 때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가치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놀이는 정신을 소모하고, 의지와 기개를 어지럽히며, 공부를 그만두고, 바른 품행과 절도가 잃어지고, 경쟁을 조장하고, 간사함을 기르고, 심지어는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데까지 이른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를 엄중히 꾸짖고 금지하여야 하며, 혹 놀음하는 기구를 몰래 감추어 둔 것이 있으면 불태우거나 찢어버리고서 종아리를 때려야 한다.⁶³⁾

-
- 61) 李德懋, 『士小節』, 「童規·教習」, “擊蒙要訣, 有革舊習章, 聖學輯要, 有矯氣質章, 小學書, 有立教篇, 近思錄, 有教人篇, 此於童子, 尤爲切當, 皆可以加意勉行也.”
- 62) 李德懋, 『士小節』, 「童規·敬長」, “蓋驕生於淺, 淺生於昏, 摠由乎幼時不教以厚重恭謹, 自陷於不孝不悌, 可不思哉.”
- 63) 李德懋, 『士小節』, 「童規·事物」, “凡耗精神亂志氣, 廢工業薄行檢, 資爭競養譎詐, 甚至溺於賭錢, 蕩敗財產, 迺陷刑辟, 故爲父兄者, 嚴截呵禁, 或潛置技具, 焚裂而楚撻之可也.”

이것은 아이들의 놀이가 불러오는 폐해에 대해 설명하고, 부모는 자체가 놀음에 빠져 본래의 의무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경계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일종의 놀이지도로서 현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으로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 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만한 내용이다.

한편 이덕무는 가치교육의 성공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한다.

정경삼이라는 아이는 나에게서 공부를 하였는데, 정숙하고 온후하면서 부지런하고 착실하였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온갖 일이 모두 잘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변소에 가는 일 같은 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도 잘 하기가 역시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 그 마음가짐을 아름답게 여겼다.⁶⁴⁾

박경유군은 마음이 침착하고 온화하고 조용하며, 뜻이 부지런하고 인자하고 착하였다. 그는 앉는 자리의 오른쪽에 일찍이 명심할 점으로, “심신의 활동력을 보양하고, 타고난 마음씨와 몸가짐을 깨달아 알도록 힘쓴다.”라고 써놓고는 이를 착실히 지키고 삼가 살폈다. 그 하나는 형서의 말이요, 또 하나는 여형공의 말이다. 나도 역시 몸이 연약하고 몸가짐도 연약한 까닭으로 항상 이 말을 외우면서 스스로 자신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⁶⁵⁾

이처럼 정경삼의 심사숙고와 겸손, 박경유의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 등을 예로 들며,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반성하며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덕무는 가치교육은 특별한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진다고 생각했다. 즉 “어떤

64) 李德懋, 『士小節』, 「童規·事物」, “鄭童子慶參, 從余學, 靜厚而勤實, 嘗曰處萬事, 得其善甚難, 登溷瑣事也, 善登亦難, 余聞而嘉之.”

65) 李德懋, 『士小節』, 「士典·謹慎」, “朴君景愈, 神沈而調靜, 志苦而慈吉, 座右嘗書保養精力, 理會氣象, 敦守而勤察之. 其一邢恕語也, 其一呂榮公語也. 余亦體骨羸而儀貌慙, 故誦此而自檢焉”

사람이 선비의 본분이 대개 어떠어떠한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말하기를, “그 대략을 말하면 가정에 들어와서는 효도를 다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경을 다하며, 낮에는 농사일에 힘쓰고, 밤에는 책을 읽는 데 힘쓰는 이 네 가지 일이 있을 따름이오…… 책을 읽고 몸가짐을 닦는데 만약 근본적인 표준이 없으면 만족하게 보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학문을 연구하여 몸가짐을 살피고, 인격을 함양하여 올바른 일을 몸소 실천함을 알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로 삼음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포함된 뜻이 매우 큰 것이다. 이는 우암 선생의 학문하는 방법이다.”⁶⁶⁾라고 말하며 학문에 대한 열정과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학문에 힘쓰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고 아는 것만 아니라 스스로 몸가짐을 살피고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노력하여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무릇 사람으로서 말이 겸손하고 근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속이 방자함을 알 수 있고, 눈앞에 선배가 없으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인품이나 사업에 지켜야 할 법도와 표준이 없음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⁶⁷⁾

사내아이를 교육할 때는 반드시 먼저 마음가짐을 공명하게 하고 학업을 정대하게 하도록 인도할 것이며, 그가 장성하면 스승과 벗을 추종하되 반드시 단아한 사람을 선택하고 옳지 못한 사람을 멀리하며 경서의 교훈을 어기지 않게 해야 비로소 잡류가 되는 것을 면할 것이다. 비록 빈천하여 문지기·고용살이, 또는 농사·의원·장사·공인 등을 직업으로 삼더라도 행동을 삼가는 선비 된 정신은 잃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착하게 되기는 매우 어렵고 악하게 되기는 너무도 쉽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훈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밝게 보아서 혹시라도 나쁜 것에 물드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⁶⁸⁾

66) 李德懋, 『士小節』, 「士典·教習」, “或問士之本分, 凡幾何矣. 余曰 其大略曰 入孝出恭, 晝耕夜讀, 只四事而……讀書修身, 若無宗準, 不足以見其效, 講學省察, 涵養踐履, 此於知行, 其爲目甚要, 而所包甚廣, 尤菴先生爲學之方也.”

67) 李德懋, 『士小節』, 「童規·敬長」, “凡人口頭, 不謙謹者, 知其胸中放肆, 目無前輩, 其人一生人品事業, 無規矩準繩, 可知.”

68) 李德懋, 『士小節』, 「童規·教習」, “教童子, 必先導以心術之公, 學業之正, 及

이덕무는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으로서 겸손과 근실 및 규범준수를 강조한다. 또한 이덕무는 교육의 근본은 바른 마음가짐이 우선이고, 학업을 정대하게 인도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말한다. 또한 바른 마음이 바탕이 되어 학업에 정진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훌륭한 스승과 벗이며, 經書의 교훈이라고 생각했다. 아울러 자라면서 본받을 만한 스승과 벗을 만나고 스스로 반성하고 행동을 삼가며, 천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더라도 선비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목표의식 수립에 필요한 ‘가치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孝悌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가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수양하는 修身을 통해 타인을 완성시켜주는 治人에서 이르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은 생활윤리 뿐만 아니라 학문의 목표 및 인생관 정립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 이덕무의 ‘가치교육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이덕무의 청소년예절교육론의 본질과 원리를 살펴보고, 현대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덕무의 청소년예절교육론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이덕무의 생애와 『사소절』의 저술동기, 『사소절』의 구성, 청소년예절교육의 3가지 원리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활예절교육과 인성교육

其長大, 追遊師友, 必取端雅, 屏絕匪類, 不背經訓, 始迺免爲雜流, 雖貧賤, 而抱關庸保, 農醫商匠爲業, 不失爲修敕之士, 爲善甚難, 爲惡反易, 故訓戒童子, 使之明示好惡, 無或漸染也.”

을 강조한 이덕무의 청소년예절교육론에 대해 『사소절』 「동규」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덕무가 활동했던 조선후기(경종 ~ 순종: 1720-1910)는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기였다. 당시는 중인층의 문화운동 전성기였으며, 지식인을 중심으로 역사의식을 새롭게 정립하려던 시기였다. 특히 당시는 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새로운 질서의식이 싹트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덕무는 지배층 위주의 폐쇄적인 교육에 반대하며, 신분과 직업에 관계없는 개방적·실용적·맞춤식 교육을 강조하였다.

『사소절』은 조선의 문예부흥기인 영조 51년(1775)에 실학자 이덕무가 지은 생활예절수양서이다. 이덕무는 序文에서 修身齊家를 위해 『사소절』을 저술했다고 말했다. 전체내용은 ‘남자의 예법’을 다룬 「士典」과 ‘여자의 예절’을 다룬 「婦儀」, ‘청소년의 생활규범’을 다루고 있는 「童規」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작은 예절을 지켜서 허물을 적게 하면 大義에 나아갈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덕무가 강조한 청소년예절교육의 원리를 ‘조기교육의 원리’, ‘생활교육의 원리’, ‘가치교육의 원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좋은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 친족의 모범적인 행동은 청소년들의 ‘조기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가족은 개인의 기초적인 인성과 성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훌륭한 모델링학습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한편 ‘생활교육’은 아동기부터 실생활에서 경험을 통해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등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안정적·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덕무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목표의식 수립에 필요한 ‘가치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孝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을 수양하는 修身에서 출발하여 타인을 완성시켜주는

治人에서 완성된다.’는 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덕무의 청소년예절교육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기교육의 원리’와 ‘생활교육의 원리’, ‘가치교육의 원리’는 현대 청소년교육에도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參考 文獻>

『論語』, 『詩經』
朴趾源, 『燕巖集』
李德懋, 『士小節』
——, 『靑莊館全書』
李 珥, 『擊蒙要訣』

권이종·김용구, 『청소년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11.
김계진, 「이덕무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정현, 「조선후기 초학교재에 나타난 실학교육사상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향은, 「전통사회의 아동교육원리」, 『아동연구』 10집, 高神大學校 兒童研究所, 2001.
이명순, 「사소절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최태삼, 「이덕무(李德懋)의 「사소절(士小節)」에 나타난 아동생활지도 원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Youth Education Theory of 『Sa So Jeol(士小節)』
/ Chin Sung Su*

In this paper, observed the essence and the principles of youth etiquette education theory of Lee, Duk-mu(李德懋), and investigated how to apply his theory in today. Therefore examined the Lee, Duk-mu's life, writing motivation of 『Sa So Jeol(士小節)』, composition and contents of 『Sa So Jeol』, also investigated three principles and contents of 『Dong Kyu(童規)』 that the chapter of 『Sa So Jeol』.

『Sa So Jeol』 is the life etiquette training book written by Lee, Duk-mu in 1775, in the Renaissance of the Joseon Dynasty. In 『Sa So Jeol』's introduction, Lee said he wrote this book for 'self-training and regulating the family(修身齊家)'. This book includes 『Sa Jeon(士典)』 for men's etiquette, 『Bu Ui(婦儀)』 for women's etiquette, 『Dong Kyu(童規)』 for youth life pattern etc., which contains the purpose of 'keep small etiquette could get the great cause'. Therefore the study examined the principles of youth etiquette education by 'principles of early educaion', 'principles of life education', 'principles of value education'.

【Key words】 Sa So Jeol, Lee, Duk-Mu, Youth, Etiquette education, Early education, Life education, Value education

투고일 : 5월 14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

* Research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 / chinsungu@skku.edu